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 지건길 위원장 인터뷰

“ 남도문화 콘텐츠로 녹여 세계인의 문화마당 만들 것 ”



지건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이 14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건길(6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은 “2015년 개관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전시·공연 프로그램을 마련해 국제적인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되도록 챙길 생각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가 자문 성격의 기구라는 한계가 있지만,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다 할 것이다.

문에 광주·전남의 문화가 빠져서는 안된다. 지역 문화가 문화전당에 녹아들어야 한다. 화순 고인돌 등 거석문화는 남도를 대표하면서도 세계적인 공감을 얻는 고대 문화유산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북방에서부터 전해진 거석문화(거석 문화)를 재조명하고 문화전당의 문화자원으로 축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해 12월 임기를 시작한 지 위원장은 14일 광주일보 기자와 취임 후 첫 인터뷰를 갖고 “문화전당과 양대축을 이루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7대 문화지구 조성사업을 옛 건물 리노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로는 어떤 것을 담아야 하나

▲문화전당은 아시아예술극장·문화정보원·창조원·민주평화교류원·어린이문화원 등 5개 원을 아우른 공간이다. 세계적으로 통하는 공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면

▲최근 남도 민속학의 대부인 고(故) 지춘상 교수가 자신이 평생 수집한 2만여점의 문화자원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에 기증했다고 들었다. 추진단이 이를 기증문화 확산의 계기로 삼지 못했다든 아쉬움이 있다. 문화전당 개관과 더불어 미술품 등을 기부하는 무형의 문화가 확산돼야 문화가 풍성해진다. 장기적으로 미술품·문화자원의 기증문화가 확산돼야 문화전당의 콘텐츠도 풍부해질 것이다.

“화순 고인돌 등 거석 문화 국제적 공감대 충분 7대 문화지구 조성사업 ‘도심재생’ 중심 진행”

벨링 등 ‘도심재생’을 축으로 전개해 광주가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 위원장과 일문일담.

-문화전당의 개관 콘텐츠 구축이 늦어지고 있는데

▲개관이 2015년이라고 하지만,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하다고 생각한다. 실무자로서 국립중앙박물관 개관을 준비하면서도 최소 4년 전부터 개관 콘텐츠를 놓고 고민했었다. 문화전당 개관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비록 촉박한 일정이지만, 국민과 약속한 국책사업이 차질없이 진행

연·전시 프로그램 등 콘텐츠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린이문화원의 경우 어른과 어린이들이 세대 구분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들어가야 한다. 나머지 4개원도 성격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하되, 세계인들의 뇌리에 남는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짜내고 운용하도록 꾸준히 조언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 문화자원을 문화전당의 콘텐츠로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아시아문화를 담은 그릇이 문화전당이기에

-최근 임기를 시작한 조성위원장이로서 각오가 남다른 것 같다

▲사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 초대위원장이었던 송기숙 선생님이 임기를 마친 뒤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했었으나, 고사했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서다. 조성위원장을 맡게된 이상 고향 광주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생각 밖에 없다. 사실 총리급 조성위원장이지만 급여가 없는 명예직이나 다름없다.(웃음) 오직 봉사하겠다는 마음 뿐이다.

▲ 지건길 위원장은

광주 출신으로 수창초교, 광주고등학교,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한 국내 고고학계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1968년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실 학예사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뒤 40여년 동안 고고학 발굴현장 지켰다. 국립광주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냈다.

40여년 외길... 국내 고고학 ‘산증인’

그는 국내 고고학 분야의 산증인이다. 해방 후 국내 최대의 고고학적 성과로 꼽히는 충남 공주 백제 무령왕릉(1971)을 비롯한 경주 신라 천마총(1973), 경남 창원 다호리 원삼국 고분(1988) 발굴을 주도했다.

저서로는 ‘천마총’(1974), ‘동·서양 거석문화 비교연구’(1981), ‘지석묘 사회의 복원에 관한 고찰’(1983), ‘호남고고약사’(1994), ‘고고학과 박물관 그리고 나’(2011) 등이 있다.

거란족 막아낸 고려 ‘김취려 장군’

19일 DJ센터 ‘사료집 출판기념회’

김취려(金就礪·1172~1234) 사료집 출판기념회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에서 열린다.

축한 고려 왕조 최초의 인물로 양국의 화평관계를 체결한 주역이다. 언양김씨 선양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성수)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변양섭 울주문화원장이 축사를 하며 박종기 국민대 교수가 ‘위열공 김취

려 장군의 생애와 당대 평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식전 행사로 임방울국악진흥회의 풍물관구, 판소리, 남도민요 공연이 열리며 참석자에게는 사료집과 논문별책과 CD, 기념품을 제공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젊은 예술가 25인의 시선

갤러리 리체, 28일까지 ‘점 : 핑(jumping)’



이승애 작 ‘중경’

갤러리 리체는 오는 28일까지 35~45세 젊은 작가들을 초대해 ‘점 : 핑(jumping)’전을 연다.

초대 작가는 서양화 강동권, 김영일, 김용안, 김재성, 김정연, 김진화, 박선주, 박영현, 안태영, 오광삼, 조현수, 최대주, 최미영, 최요안씨를 비롯해 한국화 강일호, 박환숙, 오창록, 위진수, 윤세영, 이승대, 이창훈, 조선아씨, 조각 김대영, 김일근, 이병선씨 등 25명이다.

이번 전시는 젊은 작가들에게 보다 많은 전시기회를 주기 위해 양림미술관과 공동으로 기획했다. 갤러리 리체에서 전시가 끝나면 다음달 21일까지 양림미술관에서 전시가 이어진다.

갤러리 리체 이상숙 관장은 “젊은

작가들의 작업실을 탐방하고 소통하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표현하는 진지함과 열정을 느꼈다”며 “초대된 작가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스프린터처럼 뛰어 오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kki@

“공연장 상주단체 이렇게 운영했어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광산문화회관 ‘사업 보고서’ 발간

광주전라 복지 설명회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광주 지역 사업예산은 7억 7400만원이었고, 올해는 10억4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등 3개 문화단체와 함께 사업을 진행했던 광산문화예술회관이 1년간의 자취를 담은 ‘2012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 결과 보고서’를 펴냈다. 개별 공연장이 이같은 보고서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책에는 상주단체인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김유정), 그린발레단(단장 박경숙), 아트컴퍼



니원(대표위원장)의 1년간 공연(14편, 총 25회 공연) 성과와 함께 개선할 점 등을 세세히 담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최근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술인 취업 지원 교육사업, 예술인 창작지원 복지사업, 예술활동 증명 방법 등 예술인복지재단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4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웨딩홀 새단장 기념 신양 허니문 고객 이벤트

저희 신양파크호텔에서는 대 고객 감사 이벤트의 일환으로 저희 호텔에서 결혼을 해주신 신랑, 신부님들을 위한 웨딩 멤버십 카드인 신양 허니문 카드를 발급하여 저희 호텔의 평생회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항상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약속드리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허니문카드 특전

- 객실이용시 40% DC
- 연회 및 레스토랑 이용시 10% DC
- 가족모임(돌잔치, 교회연 등), 각종 세미나 등(50명 이상 행사 시 현수막, 케이크 서비스)
- 직계 가족 웨딩 시 10% DC 휘트니스 이용시 40% DC
- 결혼기념일 당 호텔 방문시 케이크 무료제공 및 레스토랑 이용시 50% DC (단 본인2인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 제과 전 품목 20% DC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예약 및 문의 062)228-8000/221-4101~3